

뉴스 라운드업

- 이란-미국 교전 재점화에 유가·글로벌 국채금리 재급등, 금값도 강세 지속
- 어제(9/2) 코스피 -3.99%·닛케이 -2.85%·CSI300 -1.38% 아시아 증시 급락, 미국·유럽 증시는 견조 마감(S&P500 +0.46%)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3.8만명 증가 예상(4.8만명) 하회, 연준 베이지북은 완만한 성장·물가 상승 재확인
- 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2.25% 동결, 관세發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경고

이란-미국 교전 재개로 유가·국채금리는 다시 뛰었지만 미국 증시는 견조한 마감으로 위험신호를 지켜냈다

지난밤 이란과 미국이 7월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을 재개하면서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서 부상했다. 바레인·쿠웨이트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이번 충돌 여파로 유가는 5주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1.01달러(+0.88%)로 마감했다. 국채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이 장중 한때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인 4.8182%까지 치솟았고, 독일 10년물은 15년 만에, 영국 길트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국채 매도세가 잇따라 이어졌다. 다만 이날 발표된 미국 8월 ADP 민간고용이 3만 8,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4만 8,000명)을 밑돌자 국채금리는 상승분을 일부 되돌려 10년물은 전일대비 1.6bp 낮은 4.780%로 마감,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끊었다. 함께 공개된 연준 베이지북은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고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책·국제 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됐음에도 정작 미국 증시는 견조하게 마감했다는 점이다.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0.46%, +0.45% 올랐고 변동성지수(VIX)도 15.19로 6.98% 급락해, 시장이 아직 헤드라인 리스크만큼 위축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럽 스톡스 600은 -0.24%로 소폭 밀렸다.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확전을 자제하러 한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시장이 과도한 패닉 반응을 피한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금은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온스당 4,387.15달러(+1.35%)로 상승했다. 한편 어제(9/2) 낮 세션에서 이미 마감한 아시아 증시는 큰 폭으로 흔들린 상태였다 — 코스피 -3.99%, 닛케이 -2.85%, CSI300 -1.38%로, 이는 최근 며칠간 선진국 증시에서 시작해 한국·일본을 거쳐 중국까지 번진 위험자산 조정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밤사이 추가된 이란-미국 교전 소식은 이 증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그 반응은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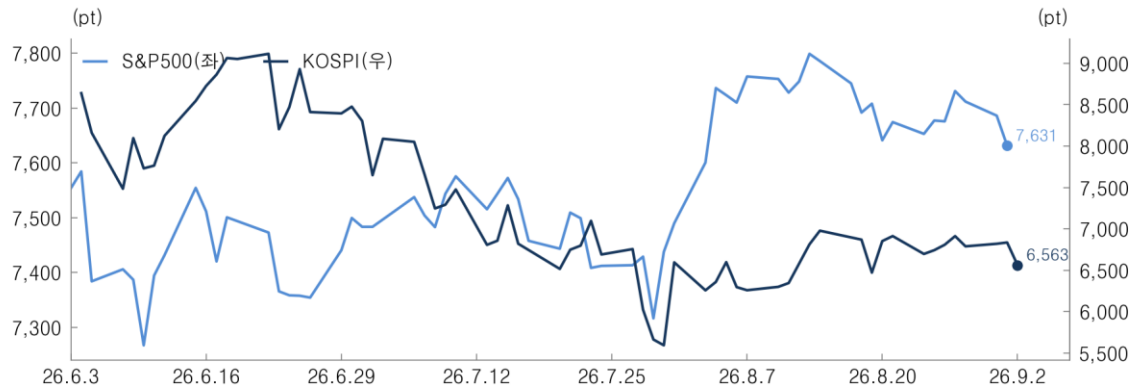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예상대로 동결하면서, 미국發 관세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반면 캐나다의 대응 관세는 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는 9월 FOMC(9월 16~17일) 금리 인상 확률이 ADP 고용 부진 이후 하우스 fedwatch 기준 71%에서 64%대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 인상 사이클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 한편 미국 연방부채는 트럼프 2기 출범 19개월 만에 40조달러를 넘어섰고, 국채금리 상승은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독일 정부는 고소득층 증세로 일부 재원을 충당하는 약 100억유로 규모의 가쪽 대상 소득세 감면안을 승인했으나, 재계는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나섰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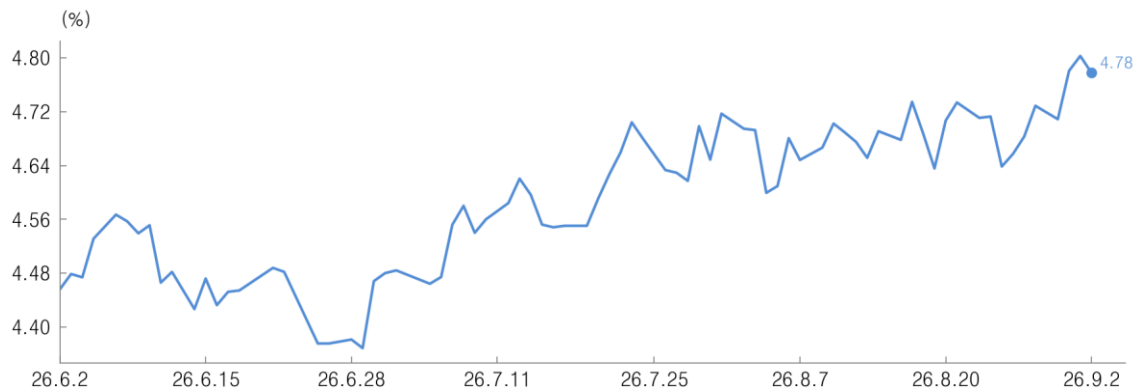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66.60	+0.46%	9/2 종가
	나스닥	26,217.82	+0.45%	9/2 종가
	STOXX 600	645.92	-0.24%	9/2 종가
	닛케이 225	64,325.42	-2.85%	9/2 종가
	CSI 300	4,547.96	-1.38%	9/2 종가
	KOSPI	6,562.72	-3.99%	9/2 종가
	항생	25,311.21	-0.07%	9/2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56	-0.10%	9/2 종가
	달러/엔	158.66	-0.01%	9/3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3 종가
	달러/원	1,358.27	-1.21%	9/2 종가
	달러/위안	6.72	-0.02%	9/2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80%	-1.6bp	9/2 종가
	미국 2 년	4.371%	-2.9bp	9/2 종가
	일본 10 년	3.002%	-0.3bp	9/2 종가
	독일 10 년	3.373%	+0.4bp	9/2 종가
	한국 10 년	4.404%	+3.3bp	9/2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5bp	+2.0bp	9/1 종가
원자재	WTI	91.01	+0.88%	9/2 종가
	금	4,387.15	+1.35%	9/2 종가
	구리	6.59	-0.11%	9/2 종가
변동성	VIX	15.19	-6.98%	9/2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37 건 HIGH	• 중동 분쟁 재격화·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채권 수익률 급상승, 주식시장 광범위 하락 ↳ 어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 공습과 이란의 대미 자산 공격으로 중동 분쟁 재격화, 브렌트유 일일 최고 \$95/배럴까지 오르며 5 주 고점 형성 ↳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4.8182% 기록(2023 년 11 월 이후 최고), 독일 10 년물 15 년 최고점 돌파, 유로존 국채 수익률 6 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주식시장 광범위 하락 초래 • 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2.25% 유지, 유가 상승 인플레이 우려로 인상 가능성 내재화 ↳ 어제 기준금리 2.25% 유지(시장 부합), 매클렐 총재는 중동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 상방 리스크이며 필요시 정책 조정할 준비 강조, 시장이 올해 인상 가능성 상향 평가 ↳ 캐나다달러 3 주 저점(1.3939)에서 반등, 중가 1.3840 수준(전일 대비 0.4% 강세) ↳ 캐나다 2 분기 국내총생산 연율 3.3% 성장(중앙은행 전망 2.5% 상회), 다만 미국 관세로 인한 성장 악화 우려 병행 • 뉴질랜드중앙은행, 추가 인상 속도 조절·고유가 인플레이 파급 우려 ↳ 오늘 브레만 총재는 이미 단행한 2 회 기준금리 인상 후 경제 영향 평가 기간을 가져가겠다고며 추가 인상 속도 조절 방침 시사 ↳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간접 인플레이 파급이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으며, 향후 분기들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 ↳ 핵심 인플레이는 향후 수개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나, 수출 주도 성장이 경제 다른 부문으로 확산 조짐을 보여 향후 1 년 성장 강화 기대
미국 뉴스 50 건 HIGH	• 8 월 미국 민간 고용 38,000 명, 예상 크게 하회… 제조업 부진 신호 ↳ ADP 민간고용지수 8 월 38,000 명 증가로 시장 예상(48,000 명) 대비 21% 미달, 노동시장 약세 신호 본격화 ↳ 교육·보건 부문이 45,000 명 고용으로 지탱했으나 제조업은 17,000 명 감소로 산업 간 양극화 심화 ↳ 7 월 공장 주문은 +0.9% 반등(6 월 수정 -0.2%)으로 부분 회복했으나 경기 모멘텀 여전히 약함 • 미·이란 7 월 이후 최대 교전, 트럼프 진영 중간선거 전 '진정' 추진 ↳ 테헤란·워싱턴 간 지난 7 월 이후 최대 규모 미사일 교환으로 중동 긴장 고조 ↳ 트럼프 주요 보좌진, 11 월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를 위해 현 단계에서 이란 전쟁 확대 억제 추진 ↳ 선거 후 미국의 더욱 강한 대이란 군사행동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음 • 유가·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미국 주식 약세, 인플레이 우려 재점화 ↳ 다우존스 -0.15%, S&P 500 -0.25%, 나스닥 -0.52%로 지정학 긴장이 주가 약세 주도 ↳ 미·이란 교전으로 유가 1% 이상 상승, 원유 비축량 급감이 유가 지지 ↳ 10 년물 국채 수익률 5 세션 연속 상승 후 고점에서 소폭 후퇴했으나 상승 추세 지속 • 미국 국채 \$40 조 돌파, 트럼프 재정 절감 공약 미충족 ↳ 미국 국채가 트럼프 재임 19 개월 만에 \$40 조를 넘어선 가운데 차입비용도 동반 상승 ↳ 미 의회예산처(CBO), 트럼프 2 기 감세 및 이민 정책이 \$4.7 조의 추가 부채를 초래했다고 추정 ↳ 연방정부 축소·전쟁 종식·경제 성장을 통한 적자 억제라는 공약과 현실 괴리 심화, 향후 의회의

권역	요약
	재정 위기 관리가 숙제 • 연준 베이지북, 경제·물가 완만 개선도 지정학·유가 리스크 경고 ↳ 경제활동 완만 증가, 고용은 3 개 지역 걱정·4 개 지역 미약·5 개 지역 정체로 지역 편차 확대 ↳ 물가는 8 개 지역 완만 상승·2 개 지역 걱정·1 개 지역 미약·1 개 지역 강상승으로 현황 혼재 ↳ 높은 에너지 가격·정책 불확실성·국제 분쟁의 영향에 대한 사업 부문의 우려 가중, 9 월 15-16 일 회의 정책 결정 난제 • 엔화 강세·달러 약세 확산, 일본은행 매파적 입장·미국 부채 우려 반영 ↳ 일본은행의 매파적 기조(긴축 선호) 신호에 엔화가 세션 고점 추가 경신 ↳ 미국 국채 \$40 조 돌파 등 재정 우려 심화로 달러 약세 거래 확산 중 ↳ 유가·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화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중 • 소비자 부담 심화로 연준 기준금리 정책 경로 난제 ↳ 소매업체 2 분기 실적에서 높은 휘발유·에너지 가격으로 압박받는 소비자 형편 드러남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정책 선택지 좁혀지는 중 ↳ 8 월 민간 고용 부진 데이터가 연준의 9 월 15-16 일 기준금리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함
유럽 뉴스 18 건 HIGH	• 영국 국채 수익률 19 년 고점 돌파, 힐리 장관 재정 여유 급감 ↳ 10 년물 gilt 수익률 5.294% 급등(9 월 2 일), 2007 년 8 월 이후 최고 ↳ 중동 미·이란 충돌 재개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채권 매도 확산 ↳ FTSE 100 -0.3%, FTSE 250 -0.8%(8 월 4 일 이후 최저); 재정부장관 힐리, 10 월 첫 예산 작성 앞두고 재정 여유 축소 • 독일, 100 억 유로 가정 세제혜택 승인 및 2026 년 성장률 전망 2 배 상향 ↳ 저·중산층 가정 대상 세제혜택 2028 년까지 단계적 시행; 고소득층 세율 인상으로 부분 재원 충당 ↳ 독일경제연구소(DIW) 베를린, 2026 년 성장률 0.5%에서 1.2%로 상향(2027 년 1.0%, 2028 년 0.7%), 수출 호조 및 중동 에너지 충격 완화가 배경 ↳ 금년 성장의 70%는 공공소비·투자 주도 • 유로존 국채 수익률 15 년 고점, 에너지 인플레 우려 확산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395%(2011 년 이후 최고), 6 일 연속 상승; 미·이란 충돌 재개로 유가 재상승 ↳ 9 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상 완전히 반영; 가스 가격 연중 고점 근처, ECB 기본값 대비 20% 프리미엄 • 영국 파운드·유로화 약세, 달러 안전자산 선호 심화 속 덴마크 크로네 방어 개입 ↳ GBP \$1.3490(8 월 14 일 이후 최저); gilt 매도 및 달러 강세로 3 주 저점 ↳ 덴마크 중앙은행, 8 월 56 억 크로네(\$8.7 억) 매입해 페그 방어; EUR/USD 는 밴드 내 간헐으나 하방 리스크 가중 • 러시아 독일 공항 드론 공격·전력망 파괴 혐의, EU 신규 제재 위협 ↳ 독일, 24 시간 내 전력망 침투 2 건 조사 중; 유럽연합 집행위, 대러시아 압박 강화 및 신규 제재 추진 공약 ↳ EU·나토, 러시아 혼합형 전쟁 규탄; 러시아는 부인 및 보복 경고

권역	요약
	• 프랑스 여름 가뭄 영향으로 2026 년 경제성장 0.1%p 하락 위험; 영국 은행 고위험 자산 담보화 우려 ↳ 프랑스 금융부, 여름 가뭄·폭염으로 2026 년 성장 0.1%p 하락 추정; 농업부문 8% 타격으로 비료비 상승 ↳ 영국 은행들, 고이율 선불카드·차량 리스 등 고위험 자산을 영란은행(BoE) 담보로 제출; 최고위험 담보 잔액 19 억 파운드로 2020 년 이후 최고
일본 뉴스 6 건 HIGH	• 미국, G20 서 일본 금리 인상 촉구 — 30 년 만에 JGB 3% 돌파 ↳ 미국 재무부장관이 G20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은행 총재·재무부장관에게 금리 인상 촉구 ↳ 10 년물 일본 국채(JGB) 수익률이 어제 처음으로 3%를 넘어섰으며, 지난 30 년 만에 처음인 수준 ↳ 기고자는 일본 통화정책 설정이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 • 엔화 오늘 급등 후 일부 반환 — 공동 개입 이후 상승분 재축소 ↳ 엔화가 오늘 달러 대비 1% 이상 급등하며 달러당 158.56 엔까지 상승한 가운데, 급등을 주도한 구체적 배경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 ↳ 7 월 말 미국-일본의 공동 시장개입 당시 상승분(달러당 163.98 엔에서 155.21 엔으로)의 절반 이상을 지난 한 달간 되돌린 형국
인도 뉴스 9 건 HIGH	• 중동 분쟁 심화로 유가 급등, 인도 주가 글로벌 약세 동참 ↳ 미국-이란 무력 충돌 재격화가 유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인도 주가지수 하락. 인도는 세계 3 대 석유 수입국·소비국인 만큼 유가 오름에 따른 생활비 인상·성장 둔화·무역수지 악화 위험 노출 ↳ 동시에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이 3 년 반 만에 최고인 4.81%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차입비용 압력 확대 • RBI 의 외환 모금 성공, 8 월말 기준 \$1,363.8 억 유입으로 루피 방어력 강화 ↳ 인도 중앙은행(RBI)이 6 월 도입한 외환스왑·해외동포 달러 예금제도를 통해 8 월 31 일 현재 누적 \$1,363.8 억 외화 유입 기록, 시장 기대 상회 ↳ 세부 구성: 비거주자(해외동포) 달러 예금 \$1,272.3 억, 외상차입금 \$38.9 억, 해외 외화 차입 \$52.6 억 • 인도 국채 5 거래일 연속 약세, 미국채 수익률 상승·유가 동반 ↳ 글로벌 채권 매도 속에서 인도 정부채도 5 일 연속 약세.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이 3 년 반 만에 최고인 4.81% 수준으로 상승 ↳ 유가 재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채 수익률의 5% 대 진입 가능성 우려 • 인도 기업 채권 발행 45% 급감, 수익률 상승으로 기업 차입 기피 ↳ 8 월 민간 채권 발행 규모 617.6 억 루피(\$6.50 억), 7 월 대비 45% 감소 ↳ 채권 수익률 전반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피 심화. 9 월 회복 가능성 낮음 • 루피화, RBI 지지 속 안정적 마감(94.97 달러) ↳ 전일 루피는 94.97 달러로 마감, 전일 94.95 대비 거의 변동 없음 ↳ RBI 의 달러 판매 지지로 수입업체 달러 수요·유가·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약세 압력 상쇄
EM 기타 뉴스 25 건	• 이란-미국 어제 호르무즈해협 최대 규모 교전, 바레인·쿠웨이트 경보

권역	요약
HIGH	↳ 7월 이후 최대 규모 군사 교환으로 지역 긴장 재점화 ↳ 새 학기 개시 직전 중동 지역 학생·학부모의 보안 우려 심화 • 이란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추가 블랙리스트, 8월 24일 45척 지정 이후 재차 ↳ 정부 웹사이트에 추가 선박 명단 게시, 적재 이전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 ↳ 통과 선박에 대한 물수·억류·벌금 위협으로 에너지·식량 운송 리스크 확대 • 러시아 7월 GDP 전년동월대비 +0.6% 부진, 연간 성장률 전망 0.4%로 하향조정 ↳ 6월 수정치 +1.7%에서 반등 실패, 1월-7월 누적 +0.6% ↳ Q2 자본투자 전년동기대비 -6.6%(약 \$1,099억), 상반기 기업 이익 -13.3% 동반 악화 ↳ 경제부 5월 발표 2026년 연간 성장 전망을 0.4%로 하향조정(종전 1.3%) • 우크라이나 8월 곡물 수출 981 천 톤으로 58% 감소, 전년 235만 5천 톤 대비 ↳ 호르무즈해협·흑해 운송로 차단으로 해상 수출 경로 제약 심화 ↳ 2026/27 시즌 현재까지(9월 1일) 곡물 수출 372.6만 톤 누적 • 흑해 드론 공격 증가, 상선들 타이어·물탱크·어망으로 임시 방어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드론 교환으로 보스포루스해협 인근 운송로 위험도 상승 ↳ 터키 대통령 "곡물 위기 확대 전에 흑해 안전 메커니즘 필요" 주장 • 우크라이나 드론 위협으로 러시아 영공 위험 부각, 페가수스·플라이두바이 운항 차질 ↳ 젤렌스키, 전일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러시아 영공이 위험하다고 경고 ↳ 터키 페가수스 항공 9월 2일 편 취소, 플라이두바이는 지연·우회 경고 • 그리스 53억 유로 조기 구제금융 2029년 조기 상환 가능, 공채비율 이탈리아 하회 ↳ 공공 재정 견조성·경제 성장으로 종래 2031년 목표에서 2년 앞당김 ↳ 공채비율 145.9%(2025년) → 136.8%(2026년 추정) 하락, 이탈리아·포르투갈 추월 • 태국 LNG 가격 충격 대비 옥상 태양광 1년 내 5기가와트 설치, 100만 가구 대상 ↳ 2,000억 바트(약 \$60.1억) 에너지전환 긴급 펀드로 가구당 5만 바트(\$1,502) 지원 ↳ 필리핀·방글라데시도 유사 재정 정책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중 • 레바논 중앙은행 2019년 금융붕괴 이후 4년치 거래 감사 시작 ↳ 프랑스 컨설팅 업체 Alvarez & Marsal 선정으로 투명성 강화 신호 ↳ 자본통제·예금 동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재건 기반 마련 • 가나 8월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주택·에너지·식료품 가격 주도 ↳ 7월 +4.6%에서 상승, 주택·수도·에너지가 29.4% 비중, 식료품이 29.1% 비중 ↳ 월간 기준 -1.0% 하락으로 월별 낙폭 최대 기록 • 인도네시아 신임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금리 상승을 다음 정책회의 의제로 상정 ↳ Destry Damayanti, 여성 총재 취임, 글로벌 채권 수익률 상승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압력임을 인정 ↳ 전임자 Perry Warjiyo, 7월 중도 사임 후 발생한 공석 상태 이번엔 해소 • EUR/HUF 주간 3.3% 상승해 3.7165까지 도달, 중동 분쟁·유류비 상승으로 헝가리 통화 약세 ↳ 200일선(371.47) 돌파 후 3.7430 부근에서 저항 형성

권역	요약
	↳ 유동성 부족 속 헤지펀드 포지션 정리·스톱 주문 연쇄 유발
중국 뉴스 7 건	• 중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1.7% 이하, 글로벌 채권 상승세와 300bps 이상 격차 ↳ 미국 10 년물 수익률과의 격차가 300bps 이상으로 확대, 역사적 최고 수준 ↳ 글로벌 국채, 인플레이션 우려·정책 신뢰도 저하·지속불가능한 부채로 수십 년 만의 고점 또는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 중 ↳ 중국의 저수익률 지속, 저금리 기조 연장 또는 경제 부진을 시사하는 신호 • 시진핑, 이집트 방문 중 중동 안보 질서 재편·외부 간섭 반대 강조 ↳ 4 년 만의 중동 방문 ↳ 미국-이란 전쟁 가운데 중국의 외교·경제 역할 확대 추구 ↳ 양국, 데이터센터·반도체 협력 확대 합의 • 중국 중앙은행, G20 에서 '무역흑자 의도적 추구 아님' 주장 ↳ 2025 년 무역흑자 약 1.2 조 달러 기록, 사상 최대 규모 ↳ G20 의장 성명에서 중국을 제외한 참가국들의 '비시장 정책' 폐지 동의 ↳ 중국의 입장: 내수 확대, 개방 수준 유지 강조 • 테슬라 상하이 공장 8 월 판매 86,166 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로 둔화 ↳ 7 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 ↳ 월간 기준 전월 대비 7.9% 감소 ↳ 10 개월 연속 증가 지속
브라질 뉴스 10 건	• 이베스파 3% 상승, 선거 여론 수렴 속 11 거래일 연속 상승 진행 ↳ 이베스파 지수 +3% 상승해 4 개월래 최고치 근접, 11 거래일 연속 상승 진행 중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3%, 지역 통화 +0.5% 상승 ↳ 루라 대통령 대 우파 상원의원 간 선거 여론 기술적 동점 수렴, 약세 달러, 매력적 캐리 트레이드가 상승 주도 • 루라 대통령, 10 월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파 상원의원과 기술적 동점 ↳ Quaest 여론조사(Globo 의뢰) 2 차 투표 시뮬레이션: 루라 42%, 우파 상원의원 플라비우 볼소나루 41% ↳ 8 월 14 일 조사는 루라 43% 대 41%로 루라 우위 축소 ↳ 1 차 투표 시나리오에서는 루라 37% • 브라질 레알화, 2027 년까지 급락 회피 전망 ↳ 로이터 외환전략가 설문조사: 차기 정부의 재정 안정화 기대감이 통화 방어 요인 ↳ 레알이 달러당 4.60~6.30 범위의 중간값 근처에서 거래 중(2020 년 초 처음 5 달러 돌파 이후) • 브라질 산업생산, 7 월 예상치 크게 하회 ↳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0.2%로 집계(IBGE, 로이터 설문 예상 +0.6%) ↳ 전월(6 월) 대비 +0.2%(예상 +0.6%) • 브라질 중앙은행, 가계 신용 리스크 대응 자본 조치 추진 ↳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의사록 발표 ↳ 가계 부채 중 고금리 신용상품 비중 증가에 대응, 위험 인식 강화·자본 점진적 축적·차용자에 더

권역	요약
	지속가능한 신용 조건 제공 목표
멕시코 뉴스 9 건	• 멕시코, 미국의 자동차·철강 관세 문제 진전 촉구 ↳ 경제장관 Ebrard 가 어제 미국 상무장관 Lutnick 과 자동차·철강 관세 협상 진전을 논의 • 멕시코중앙은행, 금리 추가 인하 중단 신호 — 약 1 년 내 재개 불가능 ↳ Banxico 부총재 Jonathan Heath 가 어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현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표명 ↳ 단기 내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이 3% 목표로 계속 수렴할 때만 약 1 년 후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 ↳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매우 양호하나 확정적 성과는 아니며, 서비스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평가 • 멕시코, 일본산 철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멕시코 경제부가 어제 공식 관보를 통해 공정한 조사로, 국내 철강사 Grupo Acerero 의 신청에 따른 것 ↳ 일본산 철강판의 가격 차별 등 부당 거래행위를 혐의로 조사 개시 ↳ 조사 진행 기간은 2025 년까지, 피해액 분석 기간은 2023 년 1 월~2025 년 12 월
남미 기타 뉴스 2 건	• 미국-베네수엘라 유전개발협력, 베네수엘라 채무 재구조화 전망 강화 ↳ 지난주 발표된 협력으로 민간사 North American Blue Energy Partners(NABEP)이 17 개 유전 100 년 채굴권·650 억 배럴 매장량 확보 ↳ 미국 정부가 NABEP 모회사 지분 35% 보유 및 기타 권리 확보 ↳ Morgan Stanley, 베네수엘라 주권채 재구조화 전망 강화·석유생산 증가 기대감 제시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